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71-99
<https://doi.org/10.29212/mh.2021..12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상륙작전 연구

박희성*

1. 서 론
2. 소련 해군의 북한지역 진군
3. 웅기 상륙작전 : 1945년 8월 11~12일
4. 나진 상륙작전 : 1945년 8월 12~15일
5. 결 론

1. 서 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연합국 미국은 태평양의 섬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고, 일본 본토에는 B-29기가 네이빔탄과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리고 연합

* 육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국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력 투입하였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력을 투입했다며 소련군의 대일전(對日戰) 참전 의미를 축소하고 주목하지 않았다.¹⁾ 하지만 소련 및 러시아에서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만주와 한반도 해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해방 직후 한동안은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 같은 소련 및 러시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연합군으로서의 역할 모두를 폄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냉전 시기 이래로 구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수많은 문헌이 생산되었다. 이들 연구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주장들은 생소하기만 하다.²⁾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945년 8월 이전까지 소련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국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사항이었다. 국방부의 공간사³⁾에서는 1945년 8월 9일 대일선전 포고부터 8월 말까지 소련군의 북한 진주과정을 약 4~5쪽으로 정리한 것이 전부이다.

개인 연구자의 연구도 일부 군사적인 전개상황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대일전 참전과정 등 정치문제와 국제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사(軍史)와 전쟁사(戰爭

1) 기광서는 그 이유를 “설사 소련군 진공에 관한 사실이 언급되었더라도 그것이 지닌 의미는 우리 상황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의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였다. 기광서, 「8.15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9(1), 2005, p.2.

2) 기광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와 평가」, 군사 78, 2015, pp.72~73. 구소련과 러시아에 생산된 문헌 중 대표적 저술과 국내 소개된 문헌의 세부내용은 기광서의 논문 참고.

3)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2004.

史)에 집중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⁴⁾ 이희진은 석사논문⁵⁾과 관련 논문⁶⁾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다루었다. 이후 이완범은 박사논문⁷⁾과 관련 논문⁸⁾에서 국제관계사의 관점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를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정 및 소련의 한반도 진공까지를 다루었다. 전현수는 관련 논문⁹⁾에서 소련군의 대북한정책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전 단계로 소련군의 대일참전 과정을 언급하였다.

이후 기광서는 관련 논문¹⁰⁾에서 8.15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을 다루었다. 기광서는 이후 단행본¹¹⁾을 통해 대일전 과정을 10쪽에 걸쳐 재정리하였다. 이완범과 기광서의 연구는 숫자로 적지만, 풍부한 자료(소련과 미국)를 활용하며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에서 군사적인 측면의 세부작전 상황은 잘 그려지지 않았다. 특히나 기존 연구에서는 소련군 지상군이 주가 되어 서술되었고, 소련 해군의 역할은 제대로 다루지지 않았다. 하지

4) 국내에서 이 부분을 다룬 초기 논문은 이용희, 「38선 확정신고 : 소련대일참전사」, 『아세아학보』 1집, 1965.이다.

5) 이희진,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하지만 ‘소련군의 전투력과 동원능력이 형편없었다’라는 군사적인 의견은 소련군을 오평가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 이희진,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9권, 1992.

7) 이완범, 「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8) 이완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38선 수락,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4; 이완범, 「미국의 38선 확정 과정과 그 정치적 의도 -1945년 8월 10일~15일」,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 이완범, 「동북아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소련의 대일전참전문제를 둘러싼 미 소간의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1941년 12월~1945년 2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 2003.

9)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10) 기광서, 앞의 논문.

11)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만 실제로 한반도에 먼저 접촉하여 작전을 실시하였고, 주요 지역을 장악한 것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였다. 소련과 북한의 첫 대면은 해군이었으며, 이후 6·25전쟁까지 소련 해군은 북한 해군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존재였다.

이 글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초기 작전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시도이다. 특히 1947년 소련이 작성한 가치 높은 자료인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아카이브(史料)를 꼼꼼하게 살펴 군사(軍史)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재정리하고자 하였다. 1947년 N.B. 파블로비치(Павлович) 해군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나움 이즈라일레비치 치룰니코프(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Цирульников) 대령은 소련 태평양 함대의 북한 항구 상륙작전 경험을 요약하고, 상륙작전 동안 적용된 전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1945년도 북한 항구들에 대한 태평양함대의 상륙작전(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용된 적 없는 귀중한 사료이며, 소련 해군이 직접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실증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대일전 참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1945년 8월에 실시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청진·원산 상륙작전에 관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더하여 소련 및 러시아에서 발간된 책들을 첨가하여 그 내용을 충실성을 높였다. 특히 유리 바닌(Ю. В. Ванин)의 간행물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원로 한국사 연구자로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학술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활발히 하는 학자이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보고서 중에서 선행되는 작전인 웅기상륙작전과 나진상륙작전을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상대인 일본군과 북한 내 해당지역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기록인 “朝鮮終戰の記録”을 상호비교하면서 보충하였다.

2. 소련 해군의 북한지역 진군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대일전 이전까지 바로 앞에 있는 일본 해군보다 낮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먼바다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던 강력한 잠수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상함 전력은 극심하게 부족하였다. 그 결과 어뢰정과 항공대는 작전반경의 제약이 많았고, 기상이 좋은 날만 운용되는 등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육상국경 침범, 러시아 상선 나포 방지, 캄차카 인근 영해 침범 방지 등에 주력을 두고 있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게는 연안 방어가 주 임무였으며, 함대의 전력 증가 역시도 연안 방어를 기초로 했다.¹²⁾ 실제로 정보를 기초로 한 당시 함대 전력을 보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일본 해군 함대 전력보다 열세했다.¹³⁾

12)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урсы офиц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ордена Ленина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 1947, С.1.

13) *ibid.*, С.3.

<표 1> 대일전 직전 소련이 파악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군의 전력 비교

함급	태평양함대	일본 해군
전함	-	5
항공모함	-	6
중순양함	-	16
경순양함	2	12
구축함	11	40
수뢰정	2	19
프리깃	10	정보 없음
어뢰정	204	정보 없음
상륙정	19	정보 없음
잠수함	78	60

* 출처 :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3.

1945년 2월 알타회담 직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일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지 못했던 이유로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은 일본군의 도발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불허한다는 것이 소련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극히 적었다. 함정의 항해와 항공기의 비행은 일본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본군 관할 해안지역에 대한 숙지가 불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원으로부터 입수한 일본 기지 및 항구에서 행해지는 일본군의 일상적인 작전 관련 정보들도 제대로 확인 및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정찰 지역은 가모프 섬과 위도 41도선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전쟁 발발 직전까지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다.¹⁴⁾

14) *ibid.*, p.2

그래도 정보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상황 판단에 따르면,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방어하는 연안으로 일본 해군 순양함대가 출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전함 및 항공모함의 주력함대가 출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 또한, 미군 항공전력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북한의 항구들에 체계적으로 기뢰를 살포하였다.¹⁵⁾ 7월 17일에는 B-29기가 원산, 청진, 나남, 나진 부근에, 7월 19일에는 청진과 나진 부근에, 7월 24일에는 나진에, 7월 31일에는 나진에, 8월 3일에는 청진과 나진에, 8월 7일에는 나진에 기뢰를 살포하였다.¹⁶⁾ 미군이 항구에 기뢰를 살포한다는 것은 소련군 정찰대의 활동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뢰의 수량이나 종류, 살포 지역에 대한 정보는 군사작전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미군에게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군이 이미 살포한 기뢰들은 오히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작전을 펼치는데 큰 난관이 될 수 있었다.¹⁷⁾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항복했고, 정확히 3개월 후인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했다.¹⁸⁾ 8월 9일은 알타회담에서 스탈린이 약속한 참전일자의 마지막 날이었다. 소련의 개전일 결정은 6월 말 소련군 최고총사령부에 의해 계획되었다. 총참모부는 6월 27일 극동전 구상을 완성하였으며 28일 사령부의 승인을 받았다. 만주라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작전계획은 20~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반도에 대한 지상전이나 점령 논의는 없었고, 만주를 포함한 해공군 작전구획만 확정되었다. 즉 한반도 작전은 차후 작전이었다. 그러나 만주 작전에는 웅기, 나진, 청

15) *ibid.*, p.4.

16)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朝鮮終戦の記録 . 第1巻 : 資料篇 :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 1979, pp.91~97.

17) Цирульников Н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С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4.

18)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С.325.

진, 원산 등 북한 항구가 포함되었다. 이들 항구에 대한 작전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와 육전대에 임무가 부여되었다. 한반도로의 자체 진공이 아닌 만주 진공의 보조작전으로 일본 관동군의 후퇴와 증원을 방지하고 만주와 일본 본토 사이의 연락차단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다. 특히 동해안 작전을 담당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주요 임무는 일본 함정의 북한 항구 정박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북한 항구 장악 임무는 전투작전 개시 후에 부여되었다. 지상군의 투입도 개전이 임박하면서 소련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¹⁹⁾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사령관 바실레프스키 A. M. Василевский 원수)는 제1극동전선군(사령관 메레츠코프 K. A. Мерецков 원수, 군사위원 쉬띠코프 상장), 제2극동전선군,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 유마셰프 И.С. Юмашев 해군 대장), 아무르강 적기 소함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И. М. Чистяков 대장)과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한반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8월 10일 메레츠코프 원수는 제25군에 제88보병군단(제258소총사단, 제105소총사단, 제209기계화여단, 제220군단포병여단)과 제10기계화군단(제42기계화여단, 제72기계화여단, 제204기계화여단, 3개 자주포 연대, 제621기계화연대, 제970고사포연대, 2개 근위박격포대대, 제55독립코터사이클대대), 제17보병군단(제187소총사단, 제366소총사단, 제72기계화사단, 제219군단포병여단), 제393소총사단을 배속하였고,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는 제335소총사단을 배속시켰다. 그러나 제25군이 처음부터 직접적인 한반도 진공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예비 전력 중 1개 군단은 북한 항구에 상륙시키도록 하였다.²⁰⁾

19) 기광서, 앞의 책, pp.110~111; 이완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38선 수락, 1942-1945」, pp.270~271, 279.

20) 기광서, 앞의 책, pp.113~114; 이완범, 앞의 논문, p.279; 기광서, 앞의 논문, p.78.

8월 9일 및 10일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대(항공대장 레메스코 П. Н. Лемешко 공군 중장)은 웅기, 나진, 청진 소재 일본 해군 기지에 폭격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어뢰정들은 일본 해군 함정에 타격을 가하고, 8월 10일 오전 제12군 예하부대는 경흥을 점령하였다. 보조역할을 하던 제25군이 주력으로 나선 것은 8월 10일부터였다. 메레츠코프는 제25군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와 함께 해안지역으로 진격하여 주요 항구인 청진, 원산 등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니콜라이 레베데프(Николай Лебедев)에게는 8월 12일 아침까지 웅기와 나진을 점령하라는 구체적 임무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1일에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정찰대 140명이 별다른 일본군의 저항없이 웅기에 상륙하였고, 8월 12일에는 육전대 주력과 제393소총사단이 함께 웅기를 장악하였다.²¹⁾

3. 웅기 상륙작전 : 1945년 8월 11~12일

가. 상륙작전 준비

일본 해군의 주전력은 남쪽 해상 및 본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함선들만 한반도 북부 항구인 웅기, 나진, 청진에 정박하고 있었다. 웅기항은 일본 해군의 소규모 함대의 기동기지였으며, 일본에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로 보내는 병력과 군수물자 및 기타 물자들을 하역하는 항구였다. 1945년 3월 1일부터 군사작전 개시 직전까지 항공정찰 정보에 따르면 웅기, 나진, 청진항과 일본 본토 사이에 수송 선박들의 많은 이동이 확인되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기

21) 기광서, 앞의 책, p.114; 이완범, 앞의 논문, p.279.

존의 방어적 작전 수행에서 적극적 공격 작전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했다. 주공격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련 지상군의 강력한 공격과 소련 공군의 공습은 상륙작전에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했다. 항구 수비 부대는 소련 공군의 공습 후에는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고, 상륙부대는 일본군의 적극적인 대항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했다.²²⁾

웅기항 점령작전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유마세프 해군 대장이 직접 맡았으며, 다음과 같은 전투자산이 할당되었다. 선박은 프리깃 2척, 소해정 1척, 어뢰정 8척, MO선 2척이었다. 상륙사령관은 이바노프스키(Н. С. Ивановский) 해군 소장이었고, 정찰대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정찰단 제140정찰대(정찰대장 콜류바킨 Колубакин 소좌)의 2개 기관단총부대 총 139명으로 구성하였다. 주상륙부대는 제13육전여단 제75육전대대(대대장 마르킨 Маркин 소좌) 783명이었다. 상륙부대의 항해 및 연안 상륙을 엄호하기 위해 전투기 및 공격기가 할당되었다.²³⁾

웅기항 점령작전은 3단계 작전으로 계획되었다. 1단계에는 항공정찰 및 어뢰정의 정찰 이후 공군의 항구 및 도시 목표물에 대한 폭격 및 근접항공공격 실시였다. 2단계는 어뢰정을 이용하여 상륙한 정찰대의 항구와 도시 내 정찰 활동이었으며, 이후 3단계에서 주상륙부대가 상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항공부대와 어뢰정의 협동작전으로 출구와 접근로 상에 있는 일본 해군 함정과 수송선을 섬멸하며, 대공포 및 해안포를 제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육전대의 기습상륙으로 항구를 장악한 뒤에는 제25군이 도착하기까지 항구를

22)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7~8.

23) ibid., С.8.

사수해야 하며, 상륙부대에 대한 함포 지원은 프리깃함 ЭК-7, ЭК-10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²⁴⁾

웅기항 작전을 위해 8월 10~11일 노빅(Новик) 만에 선박들과 상륙부대가 집결하였으며, 조별로 나누어 선적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는 작전을 위한 전투 및 조직 명령을 작성하였으며, 상륙부대 지휘관 이바노프스키 해군 대장은 항해 및 연안 상륙 관련 추가명령을 하달하였다. 상륙작전에 앞서 8월 9일 00시 44분부터 10일 18시 14분까지 공군의 사전 폭격이 실시되었다. 공습에는 MBF-2 12기, IL-2기 74기, Yak-9기와 LaGG-3기 82기가 동원되었다. 공습 결과 수송선 4척 격침, 수송선 4척과 경비정 1척 파손, 중(中)구경 대공포 2문 및 소구경 대공포 3문을 파괴하였다.²⁵⁾

8월 9일 아침부터 소련 공군의 저공 폭격이 반복되자 웅기시는 각 관청과 경방단(警防團) 본부를 사전에 설치한 방공호로 옮겼다. 항구에 있던 배들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항구 밖으로 도망쳤다. 고사포 진지에서 사격을 실시하였지만, 폭격과 기총소사는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시 뒷산으로 일시 피난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은 9일 밤 자정을 지나서 퇴각을 실시하였다. 웅기 경방단은 나진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헌병대장, 군잔류대장, 군수, 읍장, 서장과 협의하여 웅기에 남아있는 모든 시민을 긴급 피난하기로 결정하였다. 10일 아침부터 일본인, 한국인 모두 피난을 시작하여 오전 중에는 시내에 인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²⁶⁾

24) *ibid.*, C.9.

25) *ibid.*, C.9.

26)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朝鮮終戦の記録 第3巻 : 資料篇 : 北朝鮮地域日本人の引場.』, 巖南堂, 1979, p.448.

나. 상륙작전 실시

소련 공군의 사전 폭격 결과 일본군의 옹기 해안방어 체계는 완전하게 방어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약화되었고, 소련 해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²⁷⁾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정찰대는 작전계획에 따라 2개 정찰조²⁸⁾가 편성되었다. 정찰 1조는 68명, 정찰 2조는 71명이었다. 정찰대는 옹기항에서 일본군의 유무를 밝히고, 항구 접근로와 상륙 예상 지점을 수비하며, 적시에 정찰 효과를 내고 상륙 1제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8월 11일 15시, 정찰 1조가 어뢰정 2척²⁹⁾에 탑승하고 노빅 만을 출발하였고, 17시에는 정찰 2조도 어뢰정 2척³⁰⁾에 탑승하고 노빅 만을 출발하였다. 당일 날씨는 안개가 자욱했고, 풍향은 남동풍이었다. 정찰 1조는 19시 옹기항에 진입하였고, 상륙에는 30~40초가 소요되었으며 일본군의 저항은 없었다. 상륙한 정찰대원들은 즉시 소규모로 나누어 도시의 여러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정찰 2조는 8월 12일 05시 25분에 상륙하여 도시로 침투하였다.³¹⁾ 정찰대원들이 상륙할 시 옹기 시내의 한국인들

27)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С.327

28) 1정찰조는 레오노프(В. Н. Леонов) 상위가 지휘했고, 2정찰조는 데브야토프(Девятава) 상위가 지휘했다.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Япония. Независим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Глава 33 Десан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Десант в порту Юки, <https://history.wikireading.ru/64619>. 특히 레오노프 상위의 정찰대는 독일과의 전쟁 동안 적진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고, 레오노프는 영웅 칭호를 받았다.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С.328; Ю. В. Вани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1945-1948”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С.24~25.

29) 보스퍼(Воспер) 타입의 T-567 및 T-578 어뢰정.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ibid*.

30) T-569 및 T-579 어뢰정.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ibid*.

31)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0~11.

은 소련군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도 하였다.³²⁾

정찰대의 활동 결과 일본군의 항구 방비는 전혀 없었고, 포대에도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12일 아침까지 한국인 주민 소수만 있었을 뿐이다. 한국인들에게 일본군 수비대는 대략 2,000명이었고, 11일 10시까지는 일부 남아있었으나, 현재는 북쪽 10~15km 지점으로 후퇴한 상태라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소련 공군의 폭격으로 철도역 지역과 소형 선박용 항만 지역에서는 화재가 있었으며, 부둣가와 정박지에는 많은 부유물이 떠 있었다.³³⁾

제13육전여단 제75육전대대 병력 783명은 8월 11일 16시에 여려함선³⁴⁾에 승선을 시작하여 18시 30분에 승선 완료하였다. 함대의 지시에 21시 30분에 노빅 만을 출발하여 정찰대와 같은 항로로 9~14노트의 속도로 항해하였다. 정찰대로부터 주상륙부대의 상륙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받은 상륙부대 지휘관은 항구의 3개 지점에서 상륙하기로 결정한 뒤 각 중대에 임무를 하달하였다. 1중대는 기관총소대 및 대전차소대와 함께 부두 서쪽에 상륙하며 해안 화력 거점을 소탕하고 철도역과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한 뒤, 용수호 동쪽으로 진격하고 동쪽 강변 출구를 점령하고 강화하라고 하였다. 2중대는 대전차소대와 함께 부두 중앙에 상륙하며, 해안 화력 거점을 소탕하고 창고를 점령한 뒤, 도시 서쪽 외곽을 따라 진격하여 1중대보다 우측 동쪽 강변 하구를 점령하고 방어를 실시하였다. 3중대는 기관총소대 및 기관단총소대와 함께 남동쪽 부대에 상륙하며, 해안 화력

32)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앞의 책, p.449.

33)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1.

34) 주 상륙부대 수송을 위해 호위함 ЭК-7 및 ЭК-10, «АМ» 타입 Т-271 소해함, 경비선 2척, ПК-3 및 ПК-4, 어뢰정 Т-514, Т-515, Т-516, Т-531이 동원되었다.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ibid.*

거점을 소탕하고 철도역과 창고·기상대를 점령한 뒤, 도시의 동쪽 외곽을 따라 진격하여 북쪽 외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대대 예비대는 기관총소대와 대전차소대, 기관단총소대로 편성하였다.³⁵⁾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해 주상륙부대는 포시예트(Посыет) 만에 대피하여 8월 12일 10시까지 대기하였다. 웅기항에서 활동 중인 정찰부대로부터 특별한 저항이 없다는 정보를 받은 뒤 다시 이동을 시작하였다. 15시 45분 상륙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어뢰정대는 예인선을 내보내 정찰을 먼저 실시한 뒤, 16시 20분에 웅기항으로 진입했다. 16시 30분에 기관단총중대가 상륙을 하였고, 18시 30분에는 주상륙부대가 상륙을 개시하여 20시 10분 완료하였다. 상륙간에 일본군의 저항은 없었다.³⁶⁾ 8월 12일 20시 10분, 상륙부대는 웅기항과 웅기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³⁷⁾

이후 웅기항에는 해상 방어강화를 위해 제2어뢰정여단 어뢰정 13척이 도착하였다. 8월 14일 웅기항 상공에 정찰기 편대가 출현하여 함선 대공포로 공격하였다. 8월 15일까지 17일까지 웅기항과 도시를 점령 및 소탕한 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상륙부대는 도시 밖 10~15km지점까지 정찰대를 파견하여 적정을 살폈다. 8월 18일에는 웅기항 방어 강화를 위해 소련군 제284포병사단, 제192독립대공사단, 제20독립보병대대, 제624독립보병중대가 도착하였다.³⁸⁾

35)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2.

36) *ibid.*, С.12~13.

37) *ibid.*, С.15.

38) *ibid.*, С.13.

4. 나진 상륙작전 : 1945년 8월 12 ~ 15일

가. 상륙작전 준비

1945년 8월 12일~13일, 제393소총사단과 육전대는 함께 나진으로 진출하여 일본군 보병대대와 교전을 하였으며, 13시 도시 외곽에서 자동화기 부대를 괴멸시키고 나진을 점령하였다. 이 나진 점령은 일본 해군 기지이자 대단위 산업 중심지인 청진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³⁹⁾

나진항은 일본 함대의 기동기지로 일본에서 한반도 북부로 오는 병력이나 물자들의 하역이 이루어지던 항구였다.⁴⁰⁾ 나진의 일본인은 군인을 제외하고 약 5,000명이었다. 나진에는 9일(8일 자정 이후)부터 소련 공군의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9일 이른 아침에는 부두가 일제히 폭격을 받았다. 정박 중인 큰 배가 14척이 있었지만, 그 중 1척은 폭침되었다. 일부 배들은 항구 밖으로 도망을 치려다, 미군이 살포한 기뢰에 의해 폭침되거나 파손되었다. 일본인 중 만주 철도 관계자들은 9일부터 특별열차로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도피하고 있었다. 10일 12시경에는 나진 경찰서장이 일부 피난 명령을 내렸다. 일본인들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피난을 시작하였다.⁴¹⁾

1945년 8월 10~11일, 사전 항공 및 어뢰정 정찰결과 나진항에는 수송선 8척과 여러 소형 선박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39) 기광서, 앞의 책, p.114.

40)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4.

41)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앞의 책, p.457.

소련 공군의 공습으로 항구와 도시는 불타고 있었으며,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의 항구와 일본 본토로 탈출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런 정찰결과를 기초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일본군이 항구와 도시를 파괴하거나 항구를 통해 한반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막고, 나진항을 소련군 지상부대 및 항공부대를 위한 기지로 삼기로 결정하였다.⁴²⁾

상륙작전 부대는 제358육전대대(대대장 스비쉴프 A. P. Свищев 대좌) 617명과 76mm 4문 및 45mm 포 2문, 제63차량화정찰대대 정찰중대 99명, 제354육전대대(대대장 미노로프 Миронов 중령) 기관단총중대 95명, 함대사령부 정찰대(정찰대장 콜류바킨 소좌) 68명으로 편성하였다. 제1진인 정찰대는 제354육전대대 기관단총중대, 함대사령부 정찰대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였다. 주상륙부대는 제358육전대대와 제63차량화대대 정찰중대였으며, 나진항과 나진시를 점령하고 소련군 지상군이 올 때까지 수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추가적으로 주상륙부대 상륙간 좌측면 엄호는 포시에트 만에 정박하고 있는 구축함 트빌리시에 탑승하고 있던 제354육전대대 기관단총중대(중대장 자하렌코 Захаренко 상위) 100명에게 부여되었다.⁴³⁾

나진항 상륙작전에 투입된 함선은 프리깃 1척(ЭК-5), AM형 소해정 2척(ТЩ-279호, ТЩ-281호), БО-1형 어뢰정 2척(БО-303호, БО-305호), МО-4형 어뢰정 2척(МО-8호, МО-16호), ПК형 어뢰정 4척(27호, 28호, 29호, 30호), A-1형 어뢰정 2척(ТКА-567호, ТКА-568호)이었다. 이 함선들은 3개 조로 편성되었는데, БО-1형 어뢰정 2척과 A-1형 어뢰정 2척은 1, 2조로 편성되어 나진항으로

42)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4-15.

43) *ibid.*, С.15~16.

사전정찰대를 상륙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3조는 프리깃 ОК-5, AM형 소해정, МО-4형, ПК형 어뢰정으로 구성되어 주상륙부대를 상륙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상륙 병력의 항해 중 엄호 및 해안 상륙작전 간 엄호를 위해서 공군사령관은 전투기와 공격기를 할당 하였으며, 나진항 점령작전 총지휘는 함대사령관이 담당하였다. 상륙지휘관 및 작전 성공 후의 나진항 선임 지휘관으로는 폴탑스키(Е. Е. Полтавский) 대좌가 임명되었다.⁴⁴⁾

8월 11일, 나진항 작전을 위한 상륙부대와 함선들을 주 기지로 집결시키고 선적작업을 실시했다. 함대사령부는 작전을 위한 전투조직 및 명령을 작성하였고, 상륙지휘관은 항해 및 해안상륙을 위한 추가명령을 작성했다.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군 폭격기 및 공격기에 의한 공습이 418 소타 실시되었다. 공군 작전의 결과로 수송선 15척, 경비정 1척을 침몰시켰으며, 철도역과 차고, 창고 5개소와 항구시설 일부를 파괴하였다. 대공포 5문과 중구경 대공포대 2개 부대, 자주포 1대를 격파하였다. 어뢰정의 항구 습격작전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송선 11척이 격침되었다고 추정하였다.⁴⁵⁾

나. 상륙작전 실시

작전계획에 따라 정찰 1조는 БО-1형 어뢰정 2척에 승선을 마치고 8월 11일 18시에 블라디보스토크 금각만(金角灣, Золотой Рог)을 출발했다. 12일 09시 30분에는 구축함 트빌리시에 승선하고 있던 제354육전대대 기관단총중대가 어뢰정 3척에 탑승하여 비타지 만((Бухта витязь)을 출발했다. 12일 10시, 정찰 2조는 어뢰정 2척이 탑승하여 웅기항을 출발했다. 같은 시각, 주상륙부대인 제358육전대대와 제68차량화정찰부대의 정찰중대도 프리깃 1척, 소해정

44) *ibid.*, C.17~18.

45) *ibid.*, C.19.

2척, MO-4형 어뢰정 2척, PK형 어뢰정에 탑승하여 금각만을 출발하였다.⁴⁶⁾

8월 12일 09시, BO 어뢰정은 일본군의 탐색을 피하기 위해 화재 연기 속에 은폐하여 나진만으로 진입했다. 당시 항구에는 어뢰에 피격된 수송선 8척이 있었으며, 부두와 항구 창고들은 불타고 있었다. 제1진의 어뢰정 2척은 소초도를 지나갈 때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지만, 11시~12시 사이 정찰조를 상륙시킬 수 있었다.⁴⁷⁾ 항구에 상륙한 정찰 1조는 항구를 방어하고 있던 일본군 보병 1개 소대의 저항을 분쇄했다. 도시로 진입한 정찰 1조는 도시 내에는 일본군 낙오병을 제외한 대규모 부대는 없으며, 현지 주민을 탐문한 결과 도시 외곽에 연대 규모의 일본군 보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항구를 점령한다는 임무를 완수한 정찰 1조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부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였다. 또한, 항구 상륙을 마친 정찰 2조는 상륙 후 2개 조로 구분하여 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결과 항구의 서부지역은 소련 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며, 항구 지역에는 많은 시체와 함께 화물, 차량 및 창고들이 불타고 있었다. 항구에 있던 많은 수송선들도 어뢰에 피격당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⁴⁸⁾ 정찰대는 항구의 교두보를 장악하고 주상륙부대가 접근할 때까지 교두보를 유지했다.⁴⁹⁾

자하렌코 상위의 기관단총중대를 태운 어뢰정 3척은 8월 12일 12시, 간진(間津)호 만으로 진입한 뒤, 인접 고지에 있는 일본군의 포격을 받으면서도 해안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다.⁵⁰⁾ 상륙한 기관단

46) *ibid.*, C.20.

47) *ibid.*, C.21.

48) *ibid.*, C.21~22.

49)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2016, С.328; Ю. В. Вани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1945 - 1948”, С.24.

50) 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В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21.

총중대는 72고지 및 68고지로 공격을 실시하여, 144고지에서 발사되는 일본군의 포격을 극복하고 13시에 72고지 및 68고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나진에서 청진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로 이동 중인 대대 규모의 일본군 보병 및 포병의 행렬을 발견하였다. 기관단총중대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대응하지 않았고, 21명의 전사자를 낸 채 화포를 버리고 144고지를 우회하여 사라졌다. 포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나진에서 청진까지 장교 없이 행군하던 병력으로, 장교들은 차량을 타고 먼저 청진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16시, 사라졌던 대대가 144고지 지역에 다시 출현했지만 포격에 의해 와해되었다. 18시, 144고지로 파견된 기관단총중대 정찰대는 일본군 포병과 교전을 벌여 12명을 사살한 뒤 경계지역으로 물러났다. 19시가 되자 일본군 포병은 자신들의 포대를 폭파하고 청진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8월 13일 02시, 기관단총중대는 205고지를 점령하였고, 이어진 한수-만산 지역에 대한 정찰 활동을 통해 일본군이 446고지에서 남쪽으로 물러난 것을 확인하였다. 13시, 기관단총중대는 한수-만산의 산지를 점령하였다. 15시 20분, 기관단총 중대는 136고지에서 퇴각하는 소대 규모의 일본군에게 사격을 가해 12명을 사살했고, 일본군은 청진 방향으로 도망쳤다. 13일 이후 15일까지 기관단총중대는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소규모 부대를 섬멸하였다. 15일 19시 30분, 기관단총중대는 청진으로 진출하던 소련군 지상군 정찰부대와 합류하여 보급품을 보급받을 수 있었다. 8월 16일 기관단총중대는 나진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17시에 나진에 도착했다. 이후 기관단총중대는 후방에서 6일 동안 작전을 실시하면서, 일본군에게 물리적 손실과 함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실시하였다.⁵¹⁾

주상륙부대는 8월 13일 02시 20분에 항구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51) *ibid.*, C.22~24.

05시 45분에 상륙을 개시하여 06시 05분에 상륙을 완료하였다.⁵²⁾ 상륙을 마친 제358육전대대는 도시 내의 일본군을 소탕하고, 방어 구역을 점령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제1소총중대는 기관총소대, 박격포소대, 76mm 포 및 45mm 포로 편성된 대전차소대를 배속받아, 도시 북동쪽 외곽 129고지 방향으로 진출하여 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제3소총중대도 기관총소대, 박격포소대, 76mm 포 및 45mm 포로 편성된 대전차소대를 배속받아, 도시 남서쪽 외곽으로 진출하여 무명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대대(-)는 129.09고지 및 도시 남서쪽 방면에서 일본군의 반격을 격퇴하기 위해 예비대로 있었다. 12시, 한국인을 통해 나진 북서쪽 5km 지점에 4,000명의 일본군이 참호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129고지의 군수품 창고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2시 30분, 창고로 파견된 소총소대가 일본군을 발견하고 사격을 개시하여, 장교 1명과 병사 7명을 포로로 잡고 9명을 사살했다. 20시, 북서쪽으로 파견되었던 정찰대는 버려진 차량과 자재, 장비, 불탄 솥, 쌀가마, 파다만 참호와 같이 점진적으로 퇴각하는 일본군 부대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일본군 2명을 사살하고 포로 8명을 잡았다. 21시, 2개 소총소대를 대대 전방 5km 지점까지 정찰을 보냈으며, 기관단총소대는 일본군 유무 여부를 확인하라는 임무를 받고 정찰을 실시했다.⁵³⁾

제358육전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함선에서 수병 100명이 증원하였다. 8월 13일 야간은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고, 소초도에서는 어뢰정 및 소해정에 대한 기관총 사격도 있었다. 14일 06시, 야간 정찰에서 복귀한 소총소대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은 전선 전방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웅기 방면 도로 및 북서방면에는 일본군의 흔적은 없었다. 10시, 선임 해군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소총

52) *ibid.*, C.21.

53) *ibid.*, C.24~26.

소대 및 기관단총소대가 대초도와 소초도를 소탕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소해정 TЩ-279호, TЩ-281호의 함포 지원 사격을 받은 부대는 13시 15분에 대초도의 일본군을 소탕하고 대초도를 완전점령하였다. 13시 40분, 부대는 소초도로 향했고 격렬한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하지만 15시까지 일본군을 소탕하고 섬을 점령는데 성공하였다. 대초도와 소초도 점령작전 중, 나진만에는 여러 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나타났으나 함선의 대공사격으로 쫓겨났고, 1대 만이 대초도에 250kg 폭탄을 투하하는 데 성공하였다.⁵⁴⁾

8월 15일 동안 제358육전대대는 계속해서 정찰과 잔여 일본군 소탕을 하였으며, 교란 임무를 부여받은 자살공격대로부터 도시를 방어했다. 12시, 웅기 남서쪽 3km 지점에 있던 제393소총사단과 통신이 연결되었다. 14시, 대대 지휘부로 제393소총사단 정찰지휘관이 도착하였고, 사단 예하부대의 현 위치와 진격계획을 통보하여 주었다. 이후 8월 17일 18시, 제393소총사단이 나진에 통과하였으며, 계속하여 청진으로 진격하였다.⁵⁵⁾

상륙부대를 상륙시킨 후, 함선들은 바다로부터 만을 방어하고 항구와 도시로 상륙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집결했다. 8월 13일 12시 58분, 소초도로 향하는 순찰구역에서 소해정 TЩ-279호의 15m 지점에서 기뢰 폭발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대한 소해작업에 착수하고, 전투함들은 지정된 항로로만 항해하게 하였다. 나진항을 이용한다는 계획이 진행되면서, 함대의 기동전력 주둔을 위해 함대 모항에서는 수송선 2척 및 유조선에 함대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무기, 탄약, 연료가 적재되었다. 14일 07시와 10시 30분에 2개 어뢰정 부대가 도착했다. 이 부대의 임무는 기지를 해상에서 방어하고, 함대 작전상황

54) *ibid.*, C.26~27.

55) *ibid.*, C.27.

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11시 39분부터 ТЩ-279호기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12시에는 ТЩ-279호, ТЩ-281호가 섬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초도에 함포사격을 가했다. 소해 작업과 상륙부대 함포사격을 지원하면서 12시 55분에 ТЩ-279호가 동시에 기뢰 3개에 피해를 입었다. 항로를 잃고, 키와 항법장치 및 통신장치가 고장났다. 그리고 전사 2명, 중상 20명, 경상 7명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소해함은 계속해서 바다 위에서 대초도에 상륙하는 부대를 지원하였다. 13시 40분, ТЩ-279호, ТЩ-281호는 대초도에서 소초도로 목표를 변경하여 소초도에 함포사격을 시작하였고, 인근에 머무르면서 교두보 확보를 지원하고 일본군 항공기를 격퇴했다.⁵⁶⁾

나진항으로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에 있던 어뢰정에게 지정된 항로 접경지역에 장거리 포격을 실시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시 구역 경계는 3번 부두에서 대초도 북쪽 끝단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8월 14일 20시 30분, 어뢰정 6척이 항로 포격을 위해 출항하였고, 포탄 33발을 발사하고 기뢰 4개를 제거하였다. 20시 35분, 어뢰정 4척도 출항하여 포탄 16발을 발사하고 기뢰 4개를 제거하였다. 21시 50분 함대 모항으로부터 상륙함 캄차트네프티(Камчатнефть)와 수송선 수찬(Сучан), 그리고 1호 유조선으로 구성된 선단이 출발했다. 소르킨 소장이 지휘하는 선단에는 아르툰 지역 육상방어부대와 제152독립대공사단 및 제192독립대공사단의 일부 병력, 기동부대 기지 조직을 위한 군수품 및 연료를 적재했다. 선단의 나진항 진입을 위해 8월 15일 21시 40분 БО 어뢰정 2척이 나진만으로부터 나와 선단을 맞이했다. 22시 30분, 만 입구 대초도 구역에서 수송선 수찬이 기뢰에 접촉하였지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23시 05분에는 상륙함 캄차트네프티가, 23시 20분에는 1호

56) ibid. C.27~28.

유조선이 기뢰에 접촉하였지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직후 나진항은 일단 폐쇄되었다.⁵⁷⁾ 소련 함선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기뢰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나진항을 기동기지로 사용하려던 최초 목적을 포기해야만 했다.⁵⁸⁾

8월 16일, 함대 모항에서 나진항으로 소해정 5척, 소형 소해정 3척, 기뢰부설함 2척, 소해 바지선, 자주 탈자기로 구성된 특별소해부대가 파견되었다. 8월 29일이 되자 나진항의 소해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항구가 개방되었다. 총 116개의 기뢰가 제거되었다. 나진항 폐쇄 동안 모든 선박의 항해와 바다를 통한 화물 환적 및 승객 환승은 웅기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육지를 통해 나진으로 연결되었다.⁵⁹⁾

결론적으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게 부여되었던 항구와 나진 점령 임무는 완수되었다. 다행히도 항구와 도시 점령 시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으며, 개별 집단 및 자살특공대원의 저항만 있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피해는 전사 7명, 부상 37명이었다. 또한, 어뢰정 1척 침몰하고 소해정, 1호 유조선, 8호 경비정, 수송선 2척이 손상을 입었다. 일본군의 피해는 전사 277명, 포로 292명이었다.⁶⁰⁾

57) *ibid.*, C.28~29.

58) С. Е. Захаров, В. Н. Багров, С. С. Бевз, М. Н. Захаров, М. П. Котухов,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Глава одиннадцатая Десанты в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Высадка в Южи и Расин,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 М., Воениздат, 1973, http://militera.lib.ru/tihookeanskiy_flot/11.html

59)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29.

60) *ibid.*, C.29.

5. 결 론

북한에게 있어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조직, 6·25전쟁 준비 및 전쟁수행과정에서 소련군의 영향은 지대하고 할 수 있다. 육군에서는 편제와 교육훈련 등 대부분의 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종 장비 지원을 해주었다. 공군에서는 실제로 MiG 전투기가 비공식적으로 참전을 하였다. 또한, 해군에서도 각종 함정을 지원하고 무기 및 기뢰 등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인 북한군과 소련군의 관계는 1945년 8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으로 소련군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에 진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소련군 제25군이 지상으로 진격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런 지상군의 진격과정에 맞춰 먼저 작전을 실시한 것이 바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였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기항으로 한 함대로서, 한반도 북부인 웅기, 나진, 청진, 원산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1947년 소련이 작성한 귀중한 아카이브와 소련 및 러시아의 발간물을 통해 그동안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의미가 컸던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일련의 상륙작전 중 웅기상륙작전과 나진상륙작전의 군사적인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물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소련군(해군 및 공군 포함)의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축소되었던 소련군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평가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실제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시발점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이어, 필자는 그동안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상륙작전을 군사사, 전쟁사적 측면의 연구논문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연구 정리는 다른 연구자들이 폭넓은 영역에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이 글이 군사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고 소련군의 작전을 강조하면 묘사했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고투고일 : 2021. 9. 30,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소련군,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웅기, 나진, 상륙작전

<참고문헌>

1. 사료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урсы офиц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ордена Ленина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 1947.

2. 단행본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_____,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1945 - 1948"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Широко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Япония. Незавершенн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Глава 33 Десан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Десант в порт Юки.
(<https://history.wikireading.ru/64619>)

С. Е. Захаров, В. Н. Багров, С. С. Бевз, М. Н. Захаров, М. П. Котухов,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Глава одиннадцатая Десанты в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Высадка в Юки и Расин,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 М., Воениздат, 1973.
(http://militera.lib.ru/h/tihookeanskiy_flot/11.htm)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朝鮮終戦の記録. 第1巻 : 資料篇 :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 1979.

_____, 『朝鮮終戦の記録 第3巻 : 資料篇 : 北朝鮮地域日本人の引場』,

巖南堂, 1979,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2004.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3. 논 문

- 기광서, 「8.15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9(1), 2005.
- _____,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와 평가」, 『군사』 78, 2015.
<https://doi.org/10.29212/mh.2015..96.71>
- _____, 「2000년대 이후 북한사 연구의 성과와 문제」, 『역사와 현실』 97, 2015.
<http://uci.or.kr//G704-000054.2015..97.017>
- 이완범, 「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http://uci.or.kr//G704-000054.2015..97.017>
- _____,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38선 수락,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4.
<https://doi.org/10.29212/mh.2015..96.71>
- _____, 「미국의 38선 획정 과정과 그 정치적 의도 -1945년 8월 10일~15」,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
<http://uci.or.kr//G901:A-0001050761>
- _____, 「동북아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소련의 대일전참전문제를 둘러싼 미 소간의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1941년 12월~1945년 2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 2003.
<http://uci.or.kr//G901:A-0002090606>

- 이희진,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http://uci.or.kr//G901:A-0004591182>
- _____,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9권, 1992.
<http://uci.or.kr//I410-ECN-0102-2019-900-001745708>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9집, 1995.
<http://uci.or.kr//G901:A-0001529064>

(Abstract)

A study on the Amphibious operations of the Unggi and
Rajin area conducted by the Pacific Fleet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Park, Hui-seong

This article looked at the Unggi and Rajin Amphibious operations of the Soviet Navy's Pacific Fleet in August 1945. As the Allied Forces won World War II, Korea was liberated. The Soviet Army declared war on Japan on August 8, 1945 and participated in the second world war. The Soviet ground forces attacked Manchuria and defeated the Japanese Kwandong Army. And as a subsequent operation, they advanced to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cific Fleet occupied ports in the North Korean region, with the aim of preventing the retreat and reinforcement of Japanese Kwandong forces.

Air units belonging to the Pacific Fleet bombed the Japanese naval bases in Unggi, Rajin and Chongjin on August 9 and 10, 1945. The Pacific Fleet attacked Unggi on August 11, 1945. Operation Unggi was carried out by the Fleet Command's reconnaissance units and marines. And on the 12th, the landing force occupied Unggi Port and Unggi City without much resistance.

The operation to Rajin began on August 12. Also, the Fleet Command's reconnaissance unit and marines were in charge of the operation. The reconnaissance unit occupied Rajin Port first and secured a bridgehead, and the main landing unit completed the landing on the morning of the 13th. Subsequently, while occupying Ungisi and the outlying hills, they attacked the Japanese forces and cleared out the Japanese forces in Daechodo and Sochodo.

Keywords : Soviet army, Pacific Fleet(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Unggi,
Rajin, Amphibious operations

